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정_준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가쿠인대학	파견기간	2016.09~2017.07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 오사카가쿠인대학교의 위치는 오사카 중심 시내인 우메다에서 JR이나 한큐로 대략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학교의 규모는 생각보다 순천향대학교보다는 작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꽤 크며, 시설은 일단 학교내에서 자유롭게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국제센터로 제한됩니다. 상당히 아날로그식인데, 일본이 전반적으로 아날로그식인 것을 감안하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국제학부와 외국어학부를 제외한 학부학생들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적어보입니다. 자세한건 뒤에 나올 수업이야기에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p>
2016-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유학생과목 - 문법반 D클래스 : 마쓰다센세. 완전 천사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라는게 단순히 학생들한테 친절하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공부방법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유학생이라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심에 수업진행방식이 유학생에 딱 들어맞아, 수업에서 나온 내용을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p> <p>유학생과목 - 한자반 B클래스 : 센세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JLPT 2급을 땃지만, 한자 파트가 굉장히 취약해 자진해서 C클래스에서 B클래스로 내려갔습니다.</p>

	<p>호스피탈리티 인적자원매니지먼트(2학점) :조를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관참은 친구들과 조가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낯을 가리는 일본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반학기간 수업 듣는 유학생이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p> <p>호스피탈리티 이벤트 프로듀스(2학점) : 딱히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하는것에 대해서 별 말씀은 없으시지만, 전부 다 점수로 받기때문에 출석이나 신경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p> <p>식음료 오퍼레이션(2학점) : 지금 뭔가를 써보려고 하는데 딱히 기억이 나지 않을정도입니다. 아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던 걸로기억하고 있습니다.</p> <p>레스토랑 오퍼레이션(2학점) : 프린트물을 가져와서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에 자비가 없으십니다. 사!자!후!</p>
<p>2017-1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유학생과목 - 문법반 D클래스 : 후쿠이. 하.. 정말 초급반 애들을 가르칠 때 적용해야할 수업 방식과 양을 D클래스에 적용하며, 여러학생들과 트러블을 낳았던 센세네요. 특히 저를 포함 D클래스에 있던 한국인 남학생 3명과는 정말 땔래야 땔 수 없는 악연입니다. 오죽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센세에게 그 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원숭이로 아는 것인지 조삼모사 급의 대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 저것 전방위적으로 맛만 봐서 깊이 들어간 느낌이 없습니다. (주; 가능하시면 후쿠이를 피하시오)</p> <p>유학생과목 - 한자반 B 클래스 : 2학기 이하 동문 입니다.</p> <p>경제학개론(4학점, 시간이2배라서학점이2배가됨. 공식학점) 시험100%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이며, 처음으로 국제학부와 외국어학부가 아닌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며 국제학부와 외국어학부를 제외한 학부학생들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적어보인다고 느꼈습니다. EXILE가 많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자기가 자기의 공부를 복습하는 것인지 모를정도로 칠판과의 아이콘택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하므로 굉장히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전무합니다.</p>

	<p>경영학개론(2학점) : 시험 100%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할려는 자세 보이고, 질문 있을 때 교수님께 질문하면 교수님이 챙겨주십니다. 매 수업마다 새로운 프린트가 나오고 프린트에 빈칸채워 넣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학생 입장에서는 빠지면, 물어볼 곳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럴 때 미리 교수님께 눈 도장을 받아 놓으면, 교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전 수업 내용이 전부 메모되어있는 프린트를 사진 찍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 눈에 드는게 가장 시급합니다.</p> <p>호스피탈리티특별강의(2학점) : 전학기 호스피탈리티 이벤트 프로듀스 교수님이십니다. 출석체크는 곧 점수입니다. 매 수업마다 특별강사님들이 초청되어서 오기 때문에 꽤 흥미를 가질만한 수업입니다.</p>
프로그램 운영	<p><u>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u>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학교 축제와 가끔씩 이벤트를 열긴 하지만, 초반에 한정됩니다. 국제센터 스태프들도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말해주고 뭔가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일이 생기면 '당신의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라는 나몰라라하는 어투로 말을 하는데, 진짜 열 받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본 본교학생도 아닌, 유학생에게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학생을 관리하는 국제 스태프로서의 자세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p> <p>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홈스테이로 시작해서 한달 살고, 그 집 가족의 것도 그렇고 집의 환경도 그렇고 도저히 1년동안 생활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자취로 바꾸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때 자신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있다, 일을 몇번이나 하게 한다, 상대방에게도 무례하다라는 등의 언행으로 마치 저를 죄인 취급했던 것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u>현지 기후 및 유의점</u> 9월 1달동안 비, 폭풍, 장마 장난 아닙니다. 학교 쉬는 날도 허다 합니다.</p>

	<p>습기 장난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데 아니라 무덥다는게 뭔지 알게 됩니다. 옷과 내 몸이 마치 하나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들게 됩니다. 기분최고. 11월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집밖보다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따뜻한물로 샤워를 하고 가스를 끄는걸 잊지 마세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남자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안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제가 하던 홈스테이는 일단 역에서 집이 도보로 30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4역 떨어져 있었습니다. 샤워는 밤 11시까지 안하면 못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카펫에 먼지가 너무 켜서 건의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홈스테이 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부터 좋은 집이 배정되기 때문에 남자는 제일 후진 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못믿겠으면 해보시던지요.</p> <p>임페리얼 아이카와 : 최고입니다. 바퀴벌레니 뭐니 하는데 홈스테이 해보고 살아보면 그딴 소리 안나오고요. 학교에서 1역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걸어서도 갈수있어요. 좀만 시간 투자하면. 역에서도 도보로 1분 찍습니다. 처음에 전차소리가 조금 거슬리나 적응됩니다. 여름에 덥다고 문 열어놓으면 전차소리에 천지가 울립니다. 속는셈치고 여름에 정 더우면 에어컨 트세요. 전차안다니는 밤시간대에 끄던지 하시고 살아보세요.</p>
식사	<p>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일단 학교에서 정식 먹는 것이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유학생 카드 제시하면 100엔 할인됩니다.</p>

	<p>직접 요리라는게 메뉴 잘못 고르면 이미 파는 것보다 가격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철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p> <p>물은 프렌드마트에서 전용 페트병 사면 하루에 2번 리필가능한데, 현실상 하루에 1번만 리필해도 충분히 수분 섭취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p> <p>질리면 그냥 밖에서 사주세요. 일본까지 갔는데 먹을 것도 먹고 해야죠.</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정기권 무조건 사세요. 만들기귀찮다고 하루 전차권 끊어 하루 쓰는, 하루살이 인생 살지 마세요. 돈을 아끼려면 여기서 아끼세요.</p> <p>자전거 타려면 타세요.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달리는 도중에 미끄러질 수는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30만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달에 2000엔 언저리 + 국내에서 상해보험	<p>국내에서 일단 상해보험 들었습니다. 개별 선택입니다.</p> <p>일본 국민보험 무조건 들고 매달 내야합니다. 다달이 2000엔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연결 시켜 놔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p>
숙소	아이카와 임페리얼(자취), 42000	처음에 가구대여료 있습니다. 어차피 안빌리는 거 없어요. 그냥 내세요. 그리고 전기세, 가스세 별도고, 물은 무료입니다. 물 왕창쓰세요
식비	달 25000엔	학식과 라면과 외식의 로테이션
교통비	정기권가격(잊어버림)+a	정기권가격 빼면 어차피 하루살이

		인생 살아야합니다.
책값	권당 3000엔 안팎으로 기억	몇권 됨
기타1	2만엔	본인은 이케아 및 니토리에서 가구를 사옴. 만족
기타2	23만엔	유니버설스튜디오 연간권
합계	식별불가. 매시 다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준비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놓으세요. 막판에 한꺼번에 하려고하면 골 아픕니다.

자기가 숙소를 홈 스테이로 한 사람은 바꾸는게 가능한 한 학교 연동 아파트로 바꾸세요.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유학중에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할때 재입국 신청서 쓰는 것 있으니깐, 잊어버리지 마세요.

머리를 정리하고 옵니다. 일본에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셔도 됩니다. 결과는 당신에게 맡겨두겠습니다.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비자카드를 절대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송금을 받게되는 경에우는 비자카드를 이용하는 쪽이 더 싸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가 시작되고 일본 통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돈이 움직이게 합니다.

자신의 일본식 도장을 만들어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7월까지의 학부 수업이 남아 있기에, 아직 유학생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1달 조금남은 시점에서 유학이라는 결정은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졸업이 밀리긴 했지만, 이것은 유학을 했기 때문이아닌, 제가 1학년때 학점관리를 잘못했던 것이 나비효과의 여파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일단 학교 또는 학원에서 배웠던 일본어와 전혀 다른 일본어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몸으로 체감하고나서 몸에 체득시킬수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면 한국 유학생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고 일본친구들만 많이 만들어서 반 일본인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말리고 싶습니다.

유학생회에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플 때 약도 챙겨주며,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우애를 다지고 서로의 일본 친구를 소개해 줄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뒤 늦게 아이카와 임페리얼에 합류해 굉장히 낯설고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한국인 학생들의 도움으로 매끄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표하며 절대 한국에 가서도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될 거라고 믿고, 이미 연락도 하고 만날 약속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일본친구들과의 교류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센터에는 보통 외국어학부, 국제학부, 경영학부 호텔학과 친구들이 방문하며, 이 친구들과의 접점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유학생 행사나 학교 행사에서 무조건 이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에 있어서 너무 호탕하게 다가가기 보다는 이 친구들의 샤이한특성을 배려해 조금 살갑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방도 1학년일 때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2학년 이상이라면 이미 그 전 유학생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닥 샤이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 학생들 오샤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접점을 맞으면 더 친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버설 스튜디오 연간권은 23만엔 정도 하는데, 절대 아깝다고 여기면 안됩니다. 일본학생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연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들과 놀러갈 기회도 눈에 띄게 늘게 됩니다. 게다가 3번 이상가면 이미 본전은 뽑은 상태이므로, 연간권을 사서 수시로 놀러가도록 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여기서 많이 사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부터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일본학생들도 유학생쪽에서 먼저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혹, 잘생긴 친구들이나 이쁜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일본인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당신은 그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고로 자기부터 다가가도록 합니다.